

생태문화도시

가. 생태도시의 개념

생태문화도시에 대한 개념은 생태도시와 문화도시의 개념적 정의를 통해 다가갈 수 있다. 그 관련 이론들이 다양하여 일정한 도시특성에 따라 국내 연구사를 정리하여 그 틀 속에서 공통점을 볼 수 있다.

김귀곤(1993)은 생태도시 정의에 대해 국내에서 가장 먼저 정의하였으며, 생태도시를 하나의 유기적인 체계로 보고, 도시에 있어서 다양한 활동이나 구조를 자연의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 자립성, 그리고 순환성에 가깝도록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것에 그 특징이 있다.

최병두(1996)는 생태도시에 대한 정의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기본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 생태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태도시 계획은 발전적 과정이어야 하며, 도시생태계의 고려, 환경오염 관리 및 영향요소의 고려,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제시하였다.

또한, 생태도시론을 생태론과 도시론의 결합으로 보고 생태도시론이란 인간과 자연의 상호 맥락적 관계에서 도시사회·환경의 역동적 변화과정과 대안적 전망에 관한 연구로 보고 있다. 도시환경에 대한 물리적 고려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인 목표와 고려까지 세부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한국도시연구소(2000)는 지금까지의 각종 도시문제에 의해 저하된 도시환경의 질을 높임으로써 도시인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나아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생태도시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다.

김철수(2001)는 자연생태계에서 관찰되는 원리인 생태학적 차원에